■베트남 수뇌부 '남부 3인방' 교체 의미와 전망

31년만에 권력이동 '경제 올인'

응웬떤중 최연소 총리 발탁…고도성장 주역 담당

베트남의 지도자 개편에서 경제개혁을 주창해 온 '남부 3인방'이 지도자 반열 전면에 등장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됐다.

27일 오후 베트남 국회는 당초 예상대로 '경제개혁의 젊은 기수'로 불리는 응웬떤중(56) 현 수석부총리를 최연소 총리로 발탁했고 이에 앞서 역시 경제개혁의 보스격인 응웬밍찌엣(63) 호찌민시 공산당서기를 국가주석으로 선출했다.

이들은 모두 호찌민 인근 남부지역인 빈증성과 까머우성 출신인데다 경제개혁 마인드가 강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이미 청와대 비서실장격인 공산당 서기국 상임서기를 맡고 있는 쩡떤상(57)과 함께 베트남의 고도성장을 이끄는 주역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산당 경제위원장을 거쳐 지난 5월부터 농득마잉 당서기장을 도와 당 서기국의 업무를 총괄하고있는 쩡떤상은 남부 롱안 출신으로 이미 40대에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호찌민시 당 서기를 맡아 지금의 경제도시 호찌민시를 만드는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이들 3인방은 주석과 총리, 당 상임서기의 막강한 직책에다 공산당 서열에서도 2, 3위와 5위를 차지하고있어 사실상 베트남을 이끄는 막강 파워를 발휘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똑같이 개혁마인드에다 경제전문가들인 이들 '남부 3인방'의 전면 포진은 지난 5년간 7.5% 내외의 고도성장을 해 온 베트남이 앞으로 5년간 경제에 올인해 단숨에 개발도상국의 대열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에서도 10년간의 수석부총리를 거쳐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응웬떤중은 고속성장을 이끌 선장으로 주목받고있다.

메콩델타 지역의 까머우성 출신으로 공안생활을 거쳐 호찌민시 수산회사 사장을 하기도 했던 중은 96년 당 경제위원장을 맡아 경제이론을 구축했고 1997년 수석부총리에 발탁된 뒤에는 중앙은행 총재를 겸임, 경제통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특히 40대중반인 1997년부터 판반카이 총리 밑에서 지낸 10년에 걸친 수석부총리생활은 중을 베트남 경제를 이끌 유일한 지도자로 굳혀주었다.

베트남 개방정책을 이끌어갈 3인방중 한사람인 응웬떤중 총리(56·왼쪽)와 응웬밍찌엣 국가주석(63·오른쪽)이 응웬푸쩡 국회의장(62)과 함께 국회 단상에 올라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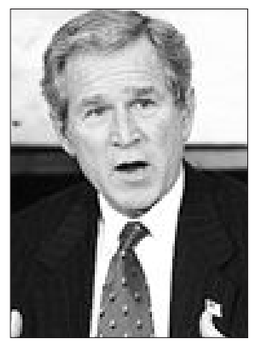
이미 제9차전당대회(2001년)에서 총리설이 있었던 그는 '최연소 총리'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많은 실무경험을 갖고있어 베트남의 당면과제인 세계무역기구(WTO) 연내 가입과 11월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무난히 치러낼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부시-고이즈미 '마지막 밀월' 선물 뭘까

미·일 오늘 정상회담, 5년만에 공동성명 발표

북 미사일·6자회담·신사참배 등도 언급할 듯



〈부시 대통령〉

〈고이즈미 총리〉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郎)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사실상 마지막 미일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지도자는 고이즈미 취임이후 지금까지 총 12번의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이번처럼 부담없기는 처음이라는게 양국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오는 9월 퇴임한다.

더욱이 주일미군 재편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양국간 첨예한 쟁점 현안들이 모두 타결된 터라 이번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장밋빛 일색이다. 고이즈미가 29일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30일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가인 그레이스랜드를 함께 방문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다.

고이미즈가 G7(서방선진7개국) 정상들 앞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열창할 정도로 프레슬리의 30년 열성팬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부시는 그런 고이즈미를 위해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선뜻 제공했다. 이날 밤에는 부시와 고이즈미간 성대한 고별 만찬도 예정돼 있다.

이번 정상회담도 '부시-고이즈미의 밀월' 과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사실 국내외의 거센 반전 물결 속에서도 부시가 흔들림없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고이즈미의 역할은 컸다. 이런 고이즈미는 외로운 부시에겐 '전우'나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였다.

부시가 29일 밤 고이즈미 총리를 위해 백악관에서 국빈대우의 공식만찬을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이런 고마움의 표시에 다름 아니다. 이 자리에서 부시의 특별한 '선물'이 준비돼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2001년 첫 회담 이후 5년만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핵개발 계획 포기,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종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움직임과 관련한 준엄한 경고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9월 퇴임전 야스쿠니 참배 시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9월 퇴임전에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또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를 방문중인 고이즈미 총리는 28일 오타와에서 가진 수행기자 간담회에서 "몇 번을 참배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그의 발언이 9월 퇴임전 참배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최진만기자 man21@

한국 '국가적 자부심' 34개국중 31위

美 시카고大 여론조사…미국 1위

미국인들이 국가적 자부심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31위에 그쳐 18위의 일본, 29위의 대만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카고대 전국여론조사센터가 세계 34개 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대상으로 자부심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다음으로 베네수엘라가 근소차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아일랜드, 4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5위는 호주가 차지했고, 영국이 11위, 프랑스가 19위, 독일(서독지역)이 27위를 각각 마크했다. 독일의 동독지역은 최하위인 34위였다. 이번 연구에서 34개국 사람들은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성공, 체육, 역사 등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긍지를 느끼는지 평가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전국여론연구센터 책임자 톰 W. 스미스는 "우리가 하나의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정치적 또는 힘의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별 자부심 순위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위	미국	18위	일본
2위	베네수엘라	19위	프랑스
3위	아일랜드	20위	포르투갈
4위	남아공	21위	헝가리
5위	호주	22위	불가리아
6위	캐나다	23위	노르웨이
7위	필리핀	24위	러시아
8위	오스트리아	25위	스웨덴
9위	뉴질랜드	26위	슬로베니아
10위	칠레	27위	독일(서쪽)
11위	영국	28위	체코
12위	이스라엘	29위	대만
13위	우루과이	30위	라트비아
14위	핀란드	**31위**	**한국**
15위	스페인	32위	슬로바키아
16위	덴마크	33위	폴란드
17위	스위스	34위	독일(동쪽)

평가 대상 항목은 ▲민주주의 운용 방법 ▲세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성공 ▲과학과 기술 업적 ▲군사력 ▲체육 업적 ▲예술과 문학 업적 ▲역사 ▲사회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처우 ▲사회보장체제였다. /최진만기자 man21@

수면부족·에어컨도 비만요인

美 앨라배마大 '알려지지 않은…' 발표

식사습관과 운동부족이 2대 비만요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이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는 비만요인들이 적지 않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수면부족과 에어컨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앨라배마 대학의 데이비드 앨리슨 박사는 '국제비만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besity)' 에 이 같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만성적인 수면부족은 식욕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많은 임상시험과 동물실험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고 비만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성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과거보다 수면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앨리슨 박사는 또 에어컨도 비만요인의 하나라고 말하고 그 이유는 포유동물은 필요할 경우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연소시키는데 에어컨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에너지를 연소시킬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엘리슨 박사가 지목한 비만 원인은 또 있다.

▲지연출산 : 늦둥이들은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기 쉽다.

▲약물 부작용 :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피임약 등은 체중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금연 : 담배를 끊으면 식욕억제물질인 니코틴 공급차단으로 체중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27일 가자 지구 남부의 이스라엘 키부츠 인근 사자이예 마을에서 중무장 장갑차를 대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軍 가자지구 미사일 공격

인질 자국병사 석방 요구

이-팔 '전면전 비화' 우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인질로 잡힌 자국 병사 석방을 요구하며 27일 밤 항공기를 동원해 가자 지구의 발전소를 공격한 데 이어 28일 새벽 남부 가자지구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보안군 관리는 이스라엘 항공기들이 발전소에 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스라엘 탱크들이 가자지구와 인접한 나할 오즈 마을 근처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국경지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자시티 부근의 샤자이예 마을에 무장 차량과 헬리콥터를 대기시키고 있으며 거주민들을 소개시키고 있다. 이스라엘군 관리들은 남부 가자지구에서 "테러리스트 기반시설"을 겨냥한 제한된 작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